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사 출마를 한 회원번호 325번 윤지선프로라고 합니다.

KLPGA에서 창단한 마스터프로1기 이기도 합니다.

협회회원이 된 것이 1998년입니다. 투어 선수로서 이렇다 할 성적도 내지 못하고 부상으로 인해 은퇴하고, 현재 골프 티칭과 멘탈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탈코칭을 하면서 1부, 2부, 3부 투어, 챔피언스투어 프로들과 소통하며 더욱 협회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2021년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일은 회원들을 대표하여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여자프로골퍼들 정말 대단하지요? 앞선 선배님들께서 터를 닦아주시고, 뒤따르는 후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공정하고 모든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협회의 일은 화려한 경력이 있는 프로만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으로 무관심 속에 지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협회회원 분들과 코칭 현장에서 소통하며 느낀 소속감과 협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사로 선출된다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전문가답게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혹여 선출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존경하는 대의원님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온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저는 제가 원래 있던 곳에서 회원님들과 계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 월 25 일

성 명 : 윤 지 선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